

손흥민, 유럽 통산 150호 골... 정초부터 기록 행진

카라바오컵 준결승 브렌트퍼드전 후반 25분 썬기골...수비도 맹활약 11년 419경기만에 1군서 150골 토트넘 2-0 승리...6년만에 결승 모리뉴 감독 "손흥민 특별한 사람"

손흥민 유럽무대 150골 달성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유럽 무대 통산 150호 골을 터뜨리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첼시전(2부 리그) 소속 브렌트퍼드의 2020-2021시즌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후반 25분 추가골을 넣어 토트넘의 2-0 승리에 한 몫했다.

2010년 독일 함부르크(20골)에서 데뷔해 레버쿠젠(29골·독일)을 거쳐 토트넘(101골)까지 유럽 무대에서만 된 손흥민은 이날 득점으로 419경기만에 프로 1군 무대 150호 골을 기록했다.

지난 2일 리즈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토트넘 소속 100호 골 금자탑을 쌓은 손흥민은 공식전 2경기 연속으로 이정표가 될 득점을 만들며 매서운 골 결정력을 과시했다.

손흥민의 시즌 공격포인트 기록은 16골 8도움(EPL 12골 5도움·유로파리그 3골 3도움·리그컵 1골)으로 늘어났다.



‘언터처블’ 쏘니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오른쪽)이 6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풋볼리그컵 4강전에서 후반 25분 썬기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4-2015시즌 대회 이후 6년 만에 리그컵 결승에 오른 토트넘은 2007-2008시즌 대회 이후 13년만의 이 대회 우승이자 통산 5번째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뒀다.

잉글랜드 강호로 꼽히는 팀 중 유독 우승 적이 없는 토트넘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EPL과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 유럽 클럽대항전 등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된다.

토트넘은 7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준결승전 승리 팀과 4월 25일 웨블리 경기장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EPL 4위 토트넘은 첼시전 4위 브렌트퍼드를 초반부터 몰아쳤다.

전반 12분 만에 레길론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무사 시소코가 문전에서 헤더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승부의 추를 토트넘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인 건 역시 손흥민이었다.

앞서 후반 15분 시소코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지역 왼쪽에서 발리슛으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가 아쉬움을 삼켰던 손

흥민은 후반 25분 2-0을 만드는 썬기 골을 뽑아냈다.

역습 상황에서 탕기 은둔벨레가 찰리준 침투 패스를 이어받아 빠르게 치고 들어간 뒤 골지역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후반 39분 브렌트퍼드의 다실바가 토트넘 해리 윙크스의 정강이를 걷어치는 파울을 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고, 수적 우위를 점한 토트넘은 여유롭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조제 모리뉴 감독은 이번에도 손흥민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모리뉴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이자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극찬했다.

기자회견에선 손흥민이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팀'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하는 데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모리뉴 감독은 "선수의 겸손이다. 그게 손흥민이다"라며 성품을 높이 칭찬했다.

모리뉴 감독은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는데, 손흥민에게 팀이 우선이다. 그와 해리 케인, 루카스 모라, 많은 선수에게는 팀이 우선이다"라며 "우리는 선수들의 그런 점이 많이 기쁘다. 손흥민도 그런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리그 뉴미디어 콘텐츠 '높아진 위상'

포털 동시접속·VOD 재생 증가...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트위치' 중계 가세

코로나19와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트위치의 가세로 2020시즌 K리그 뉴미디어 수치가 상승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K리그 뉴미디어 사업권자 '팀트웍스'가 작성한 '2020시즌 K리그 뉴미디어 트래픽 리포트'를 바탕으로 2020시즌 뉴미디어 콘텐츠 지표와 구단별 뉴미디어 시청자 수 순위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중계방송의 최대 동시접속자(동접자)와 VOD 평균 조회수가 대폭 상승했다.

2020시즌 종료 기준 K리그 전체(K리그1, 2) 경기당 평균 최대동접자수는 1만 9344명(네이버 1만 6546명·다음카카오 2798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9시즌 1만 5248명보다 약 26.8% 증가한 수치다.

리그별로 따지면 K리그1의 경기당 평균 최대동접자수가 2만 6850명으로 2019시즌 2만 5443명에서 약 5.5% 상승했다. K리그2는 4564명에서 1만 359명으로 증가해 무려 127%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이라이트, 골장면 등 K리그 주요 경기장면 VOD의 전체 누적 조회수도 증가했다.

네이버가 3206만 7313회, 다음카카오가 1803만 3459회 등 합계 5010만 772회를 기록했다. 이는 2019시즌의 4207만 7081회보다 19.1% 증가한 수치다.

K리그1 경기 VOD 누적 조회수는 4687만 5236회, K리그2 경기의 누적 조회수는 322만 5536회를 기록했다.

연맹은 ▲코로나19를 딛고 개막한 K리그에 대한 관심증가 ▲경기시간 분산에 따른 시청시간 증

가 ▲무관중 경기로 인한 뉴미디어 중계 시청률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또 세계 최대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새롭게 K리그 중계에 가세하면서 뉴미디어 수치가 상승했다.

트위치는 K리그1 11라운드부터 27라운드까지 총 102경기를 중계했으며, 경기당 평균 최대동접자수는 1347명이었다. 경기당 평균 누적동접자수는 2만 1307명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의 경기당 평균 최대동접자수를 기준으로 한 최고 인기 구단은 '챔피언' 전북이었다.

전북은 경기당 평균 3만 989명의 최대동접자수를 기록했고 이어 울산 2만 9179명, 서울 2만 5222명, 대구 2만 4917명, 수원 2만 2739명 순이었다.

K리그2는 1위 제주(1만 1244명)를 필두로 경남(1만 107명), 대전(9549명), 수원FC(8593명), 전남(8364명)이 상위 5위 자리를 차지했다.

네이버, 다음, 트위치의 총 접속자수를 기준으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경기는 전북의 우승이 확정된 27라운드 대구전이였다.

총 접속자수는 32만 3878명으로 이 경기에서는 'K리그 레전드' 이동국의 은퇴식도 진행됐다.

코로나19를 딛고 K리그의 시작을 알린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은 26만 5437명이 지켜봤다. '실상 상 결승전'이나 다름없었던 26라운드 울산과 전북의 경기의 총 접속자수는 26만 1528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K리그2는 제주와 서울랜드 개막전(13만 3875명), 수원FC와 경남의 플레이오프(11만 1835명), 수원FC와 대전의 개막전(9만 5241명) 순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미드필더 김종우 영입 '중원 강화'

수원 삼성서 활약... 패스·경기 조율·탈압박 장점

광주FC가 수원삼성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김종우(27)를 영입해 중원을 보강했다.

프로 7년 차 김종우는 181cm·70kg 체격으로 날카로운 패스와 경기 조율 능력, 탈압박이 뛰어난 테크닉으로 평가 받는다.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좋고, 날카로운 프리킥도 장점이다.

수원 매타고-선문대를 거쳐 2015년 우선지명으로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은 김종우는 프로 첫해 수원 FC에서 임대 선수로 뛰며 4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전남 수비수 최효진, 플레이 코치로

2015년 이적 134경기 6득점 11도움... 지난해 K리그 400경기 출전

전남드래곤즈의 17년 차 '베테랑' 수비수 최효진(38)이 2021시즌 플레이 코치로 뛴다.

전남은 6일 "최효진과 플레이 코치로 계약했다. 올 시즌에도 전남과 함께한다"며 "최효진이 여전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하며 코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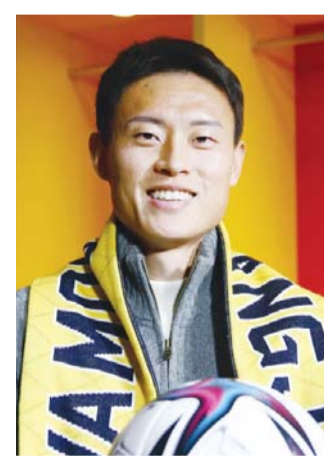
2005년 인천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포항(2007-2009년)과 서울(2010-2014년)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했다.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오버래핑과 대인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대표 영백을 맡아 A매치 통산 18경기에 출전해 1득점을 올렸다.

2016년 수원으로 복귀한 뒤 백지훈, 권창훈, 산토스 등과 경쟁하면서 부드러운 볼터치와 감각적인 패스로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K리그 통산 110경기에서 나와 10골 17도움을 기록했다.

김종우는 광주를 '기회의 땅'으로 삼아 높은 곳을 올려보고 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3경기 출전에 그쳤던 그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경기에서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갈망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시즌을 마치고 K리그 대상



김종우

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며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경기를 봐주시고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효진

들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선수단 내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는 꼭 유관중으로 경기가 열려 많은 팬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며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경기를 봐주시고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